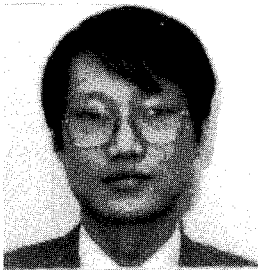


環境의 위기상황을 널리 알립시다



元仁成
(한국일보·사회부 기자)

두어달전 이용운회장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나는 완곡하게 사양했다. 이회장은 관대하게도 「다음 기회」를 전제로 나의 사양을 받아들여 주었다. 며칠전 다시 원고를 부탁했을 때는 그 전제때문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가 원고청탁을 사양한 이유는 별게 아니다. 원고 몇장을 쓸 수 없을만큼 바쁘다거나 원고료가 적기 때문은 아니었다. 유일한 이유는 과연 내가 어쭙잖게 환경문제에 관해 줄필을 휘둘러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더구나 환경보전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공자앞에서 문자쓰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주 고백하곤 하지만 나는 환경문제에 관한한 결코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이렇듯저렇듯할 지식이나 식견이 없다. 내가 환경처(당시는 환경청)를 출입하면서 환경문제를 담당

하게된 것은 지난해 1월 하순이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환경문제에 철저한 문외한이었을 뿐 아니라 관심도 없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술한 문제가 널려있는 이 나라에서 환경문제에 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더 하자면 나는 데스크로부터 환경청을 출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과연 어떤 기사를 써야하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다른 부처, 예를 들어 문교부나 노동부같은 곳은 어떤 기사를 써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환경청은 달랐다. 데스크의 지시는 이방인에게 낯선 세계와의 충돌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신문사의 특성상 나는 그것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

한달여동안 나는 환경관계 기사스크랩을 열심히 뒤졌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이미 나온 기사를 읽어봐도 이해도 잘 안될뿐 아니라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취재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과목은 늘 낙제점 언저리를 맴돌고 그러다보니 자연과학을 싫어하다 못해 혐오의 경지에 이르러 식물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와 취재원과의 대화는 선문답이나 마찬가지였다. 취재원은 분명히 우리말로 얘기하는데 영어보다도 더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개인적인 일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있는 뒤 지난 연말 다시 취재일선에 돌아왔을 때 겪은 어려움은 더 컸다. 그나마 초기 한 두달동안 배웠던 최소한의 상식마저 백지로 돌아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편집국장은 나보고 멋진 환경전문기자가 되

보라고 했지만 내겐 고문처럼 들렸다. 환경전문기자와 사회부 기자가 접목이 가능한 것인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시간만 때우자는 퇴폐적인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

들과구를 찾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자 아내는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중 생활속의 환경문제를 이따금 꺼냈다. 예를 들어 합성세제가 수질오염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등의 얘기였다. 또 신문기자를 남편으로 둔 덕에 매일 너댓가지 신문속에 묻혀 사

한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소정상회담이나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에서는 군축·경제문제등과 함께 중요의제로 오르곤 한다.

우리의 경우 최근 몇년새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해지니까 더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위를 둘러보자. 환경과 공해문제에 대해 자기의 생활과 연결시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이 심각하다는 것은 들어

“

환경관계자들은 환경문제를 대중화하는데 노력해야하며, 국민들에게 環境主義라는 새로운 이념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돼야한다.

”

는지라 어느 신문의 환경기사는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다는 등 비평도 해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방식이 지나치게 미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강의 BOD가 얼마이고 아황산가스가 몇 ppm이라는 식의 접근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감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차라리 대기오염이 극심하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업·국민은 각자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는 환경문제를 대중화하는데 환경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인이든 학자든 또 다른 관계자이든 자기의 세계에만 안주해 기술자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환경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어야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환경문제는 가장 중요

서 알지만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이제는 환경문제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감시의 역할이다. 신문지상에 간간히 오염행위를 한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기업에 대해 비판과 불매운동으로 맞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 관심을 갖는 국민이 많아져야할 것이고 그에 앞서 전문가나 관계자 언론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성당에서 미사가 끝날 때 신부가 하는 말이 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시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할 것 같다. “가서 무관심한 이웃에게 환경의 위기상황을 널리 알립시다.”